

대제사장이 죽어야 하는데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는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 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가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음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개역, 민수기 35:16~28]

포항에는 전국에서도 몇 안되는 특이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다른 학교와 좀 다릅니다. 어업과, 가공과, 통신과, 기계과입니다. 특이한 과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을 맡은 선생님들은 이동이 없습니다. 그 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은퇴할 때까지 그 학교에만 근무합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지요. 더구나 소속도 일반 학교처럼 도교위에 소속된 것이 아니고 문교부 직속 고등학교입니다. 좀 특이한 학교죠. 그 학교에 제가 1년 반을 근무했는데 어느 해에 교생이 왔습니다.

교생 아시죠? 선생 실습하러 나온 학생들, 수산대학 학생들이 실습을 왔는데 제가 짓궂게 물었어요. “실습 마치면 자격증은 나오겠지만 발령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중에 한 학생이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희망이 있지요.” 하는 겁니다. 거기서 누군가가 죽어야 이 친구들이 발령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누군가가 죽어야 발령이 날건데 그런 생각으로 실습을 마치고 돌아간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한 저도 짓궂지만 대답한 그 친구도 어지간하다 싶어요.

누군가 죽어야 내가 덕을 보는 이런 직업도 때로는 곤란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의사 아니겠습니까? 장의사가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번창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죽어야 하니까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장의사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업이 잘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어딘가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병원이나 약국도 그렇습니다. “병원이 잘 되기를 빕니다.” 하고 기도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병원에 오는 환자 입장에서는 참 곤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습 왔던 그 학생이 언젠가 그 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다시 왔다고 칩시다. “누군가 죽어야 가능성이 있지요.” 했는데 발령을 받아 왔더니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선생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더라, 그래서 자기가 발령을 받아 왔다고 칩시다. 그 학교에 와서 좋아해야 합니까, 울어야 됩니까? 좋은 자리에 발령이 났다는 데에는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러울런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먼저 가신 분에 대한 미안함을, 자기 탓은 아니라고 해도, 숨길 수는 없겠죠?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위해 돌아가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처절한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예배하시는 우리 교인들의 표정이 어떨까 해서 무척 궁금합니다. 예배를 즐거워해서 기쁨으로 나오시는지 아니면 ‘또 가야 되나?’ 하고 나오시는지 유심히 바라봅니다. 아주 즐거워서 들어오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네요.

우리는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쁨 뒤에는 우리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고안해내신 분이 누구시죠? 오늘 본문에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도피성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명동성당이 신성한 곳이죠? 요즘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마는 옛날에 테모하다가 도망가면 경찰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이 현대의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 과거 역사에 보면 소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범죄자가 도망가서 들어가 버리면 잡아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신성한 지역이었다는 이야기지요.

성경에도 이런 신성한 지역이 있습니까? 명동성당이나 소도나 이런 지역은 어느 나라에든 다 있었습니다. 이런 신성한 지역이 성경에도 있느냐는 말입니다. 얼핏 생각하시면 성전이 그런 곳 아니었겠느냐고 생각하겠지만 출애굽기 21장 14절에 죽어야 할 죄인은 내 안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일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죽으려고 성전으로 도망가서 성전의 제단을 쥐고 흔들어도 잡아다가 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안은 그런 면에서 신성한 장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신성한 지역이라는 곳이 성경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아도니야가 반역을 일으켰다가 실패로 끝나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고 버텼습니다. “뭇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잡아가다 끌어냈습니다. 성전 뿔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요압이 성전의 뿔을 잡고 “뭇나가겠다, 여기서 죽겠노라”고 버텼는데 결국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성스러운 장소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도피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피성도 앞에서 말한 명동성당이나 과거에 나라마다 있었던 신성한 지역과 다릅니다. 도피성은 그렇게 신성한 장소가 아닙니다. 아무리 도피성에 도망을 갔다고 해도 고의로 살인한 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보수하는 자의 손에 넘겨서 그로 하여금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사람을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길 용서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정말 묘하고도 묘한 제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비슷한 제도가 있을는지 몰라도 찬찬히 살펴보면 이런 제도는 성경 외에는 결코 없습니다. 본문의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죄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의상 1번 죄수, 2번 죄수, 3번 죄수라고 합시다. 이 세 종류의 죄수 중에 1번 죄수는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등장하는 고의로 살인한 자, 가령 철 연장을 들고 죽였거나 돌을 가지고 사람을 쳐 죽였거나 어떤 경우였던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창세기 9장 6절에 보시면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무조건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것이 왜 이렇게 중한 죄가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는 안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신도 죽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은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합니다.

19절 끝에,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라고 합니다. 사람을 고의로 해한 자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잡혀서 재판을 받은 후에 죽임을 당할 때를 가리킵니다. 사람을 고의로 해한 사람은 피를 보수해야 할 사람의 손에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게 되면 이 사람을 죽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죽은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살인한 자를 죽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피를 보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을 죽이면 피를 보수하는 자가 반드시 생겨납니까? 사람을 죽이면 너를 죽여야 할 의무가 있는 다른 사람이 생겨나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라고 번역된 이 말이 원어상으

로 ‘고엘’입니다. 이 말이 우리말로 다양하게 번역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피를 보수하는 자’, 다른 곳에서는 ‘근족’, ‘가까운 친척’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이 일을 맡아야 된다는 뜻이죠. 또 ‘기업 무를 자’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고엘이라는 말이 근족, 기업 무를 자, 피를 보수하는 자라고 다양하게 번역이 된 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원상회복시키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드러납니다.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것이 기업 무를 자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땅을 팔아버리면 제일 가까운 친척(근족)이 땅을 다시 사서 되돌려 줄 자격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고엘입니다. 피를 보수한다는 뜻은 원한을 갚는다는 뜻인데 원한을 갚는 것과 땅을 다시 대물리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을 듯하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보존하고 땅을 보존하고 기업을 보존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갔더라도 다시 넘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리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시는 듯합니다.

장기 둘 때 물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리면 안 된다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일수불퇴’ 한마디면 못 물립니다. 간신히 상대방의 말을 하나 잡았는데, “물리자!” 그러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물리자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는 방법은 내 말에 먼저 손대지 않고 가만히 보다가 잡아먹고 싶은 상대방의 말을 먼저 짚집어서 감추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 말을 옮기는 겁니다. 순서를 바꿔서 내 말에 먼저 손을 대면 상대방이 눈치를 채고 자기 말을 치워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자 안 된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겁니다.

장기관에서도 물리자는 쪽이 치사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죽어야 한다’고 말씀해 놓고도 자꾸 물리는 방법을 연구하시느냐 말입니다. 고엘 제도라는 것이 그렇고 도피성이라는 것, 죽어야 할 사람을 어떻게든 죽이지 않으려고 도피성 제도를 만드시는 것도 그런 현상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제사장이 죽었다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죽어야 한다고 선언을 해 놓으시고도 자꾸 물리는 것과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했죠. 그러면 다 죽어야 하죠. 한번 하나님께서 선언했으면 다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서 안 죽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탄이 옆에 섰다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못된 사탄이 하나님 옆에 서 있다가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는지 아세요? “하나님 됩니까? 일수불퇴 아닙니까?” 장기 두는 사람이 일수불퇴 하면 손 못 땁니다. 게임이 치사해지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왜 안 된다고 해 놓고, 죽는다고 해 놓고, 왜 자꾸 살립니까? 이거 물리는 것 아닙니까?” 합니다. 사탄의 이런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옆에서 “일수불퇴 아닙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을까요? 가정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실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한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죽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고 계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눈에는 1번 죄수는 죽어야 하지만 2번 죄수는 죽지 않게 하려고 방법을 강구합니다. 어떤 죄수입니까? 고의성 없이 살인을 했지만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도피성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아니 죽여서는 안 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고의성 없이 사람을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출애굽기 표현을 빌리면 “나무하러 가서 도끼로 나무를 찍었는데 도끼자루가 빠져서 옆의 사람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것도 우린 과실치사라고 그러죠. 과실치사가 어느 정도의 형벌을 받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죽여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까?

27절 보세요, 도피성에 도망갔던 사람이 도피성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라고 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에 들어갔던 사람이 도피성 바깥으로 나와서 얼떨거리다가 원한을 갚겠다고 숨어 있던 사람에게 잡혀서 죽으면 할

말 없다는 애깁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도 죽을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든지 도피성으로 피하여 가라는 얘깁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해도 죽을 죄인이지만 살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가라는 애깁니다. 살아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애깁니다.

하나님은 살아날 길을 두 단계로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 첫 단계가 도피성입니다. 이스라엘에 도피성은 여섯 개가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살았고 서편에 아홉 지파 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이 여섯 개인데 이걸 어떻게 배분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인구비례로 가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거리를 감안해서 만들었습니다. 도피성의 중요한 역할에 비추어 보면 도망치는 거리가 문제가 됩니다. 너무 멀어도 안되고 강을 건너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요단강 동편에 셋, 서편에 셋입니다. 거리를 감안해서 여섯 개를 만들었습니다.

실수로 사고를 쳤다면 제일 가까운 도피성으로 잡혀 죽기 전에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그 전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따라와서 죽이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을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기 전에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무조건 뛰어야 합니다. 가끔 머리 좋은 사람은 제일 가까운 도피성을 근족이 길목을 지키까 싶어서 뺨 돌려서 먼 곳으로 갔을지도 모르죠. 여러분이 혹시 실수로 정말 친한 친구를 죽였다고 칩시다. 앞뒤 썰 것 없이 무조건 도피성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거기에서 몇 해를 지나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고통스럽고 무엇이 가장 힘들까요?

아내와 처자식을 다 버려두고 도망쳐야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버려두고 도망가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내는 그렇다 치고 자식은? 고향산천 다 버려두고 어찌편 직장도 버려두고 친구도 버려두고 기약 없이 그 도피성에 가서 살아야 할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때 유배 가는 것도 이것보다 나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다못해 인사라도 하고, 간다고 말이라도 한마디 남기고 갔을지 모르겠지만 이젠 모든 걸 버려두고 사고 친 바로 그 순간에 가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해서 성 밖에 나가면 안됩니다. 알 수는 없지만 성 밖에서 나오기만 해봐라 하고 노리는 보수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애깁니다. 잡혀서 죽으면 할 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 밖에 못 나갑니다. 성 안에 갇혀서 가끔 고향소식은 들을 수가 있겠죠. 가끔 누가 면회라도 오겠지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2번 죄수입니다. 정말 고통스럽긴 하지만 죽음은 면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2번 죄수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다 받으셨지요? 천국 가는 건 확실하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까? 아니면 도피성에 갇혀서 하고 싶은 것 못해서 힘들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힘들고 하고 싶은 것 못해서 짜증이 난다면 2번 죄수를 닮은 겁니다. 살기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3번 죄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수입니까? 도피성에 머물러 있는 중에 대제사장이 죽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는 도피성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 쉽게 말하자면 “이 죄인은 대제사장의 피가 묻은 죄인이다.”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제사장의 피가 묻은 건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돌아가셨건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보시고 이 죄인을 용서하는 겁니다. 무죄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두 군데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25절에, ‘피를 보수하시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여 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에 거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28절에도 그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는 방법이 두 단계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1단계는 일단 도피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임시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실수로 가까운 친구를 죽이고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여러 해를 지냈습니다. 가족과 생이별한 채 힘들고 어렵게 살던 그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가장 바라고 있는 소식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 나이가 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대제사장이 너무 젊어서 돌아가실 가능성이 전혀 없네.” 무척 고민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혹시 무슨 사고로 돌아가시면 기뻐해야 합니까, 슬퍼해야 합니까? 도피성에서 바라는 희망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는 길은, 대제사장이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 젊은 대제사장이 사고로 돌아가셨다면요? 글썽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구원이 이런 모습을 닮았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도피성과 관련된 표현을 빌린다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내가 해방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은 것은 그 분이 채찍을 맞고 그 분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있는 죄수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도피성 제도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해서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된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을 때 그 도피성 안에서 기뻐 날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예요? 죄를 짓고 도피성에 들어와 있던 살인자들만 거기서 기뻐 날뛰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살인자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뻐하고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자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이고 지금 사순절입니다. 고난주간에 슬퍼하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고난을 겪으셨음을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힘들게 지내는 분들이 적잖게 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가 너무 슬퍼하고 너무 괴로워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다 받으셨지만 ‘내가 받은 이 고난으로 인하여 너희가 진정으로 기뻐하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원하심이 아닐까요? 그 생각을 하면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송스러우면서도 우리가 너무 아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으로는 그렇게 기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미안하고, 죄송스런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아닐까요? 제 설교 제목 중에 ‘죽은 새를 기리며 푸른 하늘을’ 기억하시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새는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야 합니다. 날면서 뭘 기억하느냐 하면 자기와 함께 잡혀 있다가 죽은 그 새를 기억합니다. 몸에 그 새의 피를 묻혀서 날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죽어 살며 늘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나는 새여야 합니다. 단 몸에 피의 흔적을 남기고 날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잃고 거지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기꺼이 맞아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당당한 아들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죄인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 아들이 마을에 나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야 아버지 재산을 다 털어먹은 네가 무슨 낮짜으로 집에 들어와서 그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면목 없는 내가 어떻게 이 집에서 아들이라고 붙어 있겠습니까?” 하고 다시 보따리 싸고 나가야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웃집 아저씨 말이 맞아요. 그러나 이 아들은 당당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용서해준 아버지를 위해서 이웃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자기가 봐도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싶어도 용서해야 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따리 싸고 나간다면 이전에 재산 들고 나갔던 것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 욕심으로 나갔지만 이제는 날 용서하신 아버지 때문에 나는 슬퍼도 슬퍼할 수 없는 겁니다. 이웃사람들이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정말 못난 놈이구나.” 싶어도 밖에서 울며 자책할지라도 집에 들어올 때는 눈물 닦고 웃고 들어와야 합니다. 왜요?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아버지가 나를 보시면서 힘들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며, 하나님 앞에 즐거이 찬양하며 나올 수 있는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피성에 있던 이 죄인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기뻐 날뛰었겠지만 그 뒤에는 나의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죽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소도나 신성한 지역과 성경이 말하는 도피성은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소도는 한 군데 있었지만 도피성은 어떻게든 도망가기 쉬우라고 여러 군데 설치해 놓았습니다. 소도에 도망간 죄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잡을 수 없습니다. 잡니다. 도피성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따집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가도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더더구나 거기에 사는 사람에게 대제사장의 죽음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혹시 사면하고 비슷하지 않겠느냐 하고 살펴보면 왕이 탄생하거나 대통령이 취임을 하거나 이럴 때면 사면을 하거나 죄를 용서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죽었다, 왕이 죽었다 이럴 때에 사면이 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보다도 중국에서는 왕이 죽을 때 왕이 데리고 있던 노예들을 한꺼번에 다 물어버렸습니다. 그런 걸 순장제도라고 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왕이 죽거나 아주 위대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기념하면서 사람을 살려준 예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로 인하여서 많은 죄수들이 죄를 용서받고 고향으로 돌아갔느냐는 애깁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것 때문에 이런 특이한 현상이 있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선언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엄에 손상이 가는 것을 무릅쓰고라도 어떻게든 그것을 자꾸 물리려 하시며 죽이지 않고 살리려 애를 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관에서도 한 수 물리려면 얼마나 남사스러운지 모릅니다. 좀 비굴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죽을 죄인을 죽이지 않으려고 비난을 각오하고서라도 자꾸 물리려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따졌을 때 하나님의 답변은 “그럴 수 있다, 이놈아!” 왜요? “저 죄인들 대신에 내 아들이 대신 죽었지 않느냐? 그만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생명의 값과 하나님 독생자 한 분의 생명의 값을 비교해 보면 충분히 가능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엄에 손상이 가는 것을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물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7절에 따르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음이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죽을 죄인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도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죽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죄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공활히 여기셔서 어떻게든지 살려놓으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수 중에 어떤 죄수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은 몇 번 죄수입니까? 여기 1번 죄인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서 반드시 죽을 죄인은 고의로 살인한 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은 성령을 배반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말을 바꾸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1번 죄수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다 벗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을 다 믿습니다.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용서가 된 누구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용서가 되어 도피성에서 나와 이제는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3번 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3번 죄수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괴로워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 행복한 기쁨을 누리며 사셔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묻는 것은 예배가 즐거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이런 행복을,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항상 누리며 즐기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